

찰리 커크의 멘토 목사, 다민족 기도회서 “부흥은 기도의 토양 위에 피어난다”

“회개, 부흥, 회복” 주제로
열린 다민족 연합 기도 대회

지난 2011년 11월 11일,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를 중심으로 파사데나의 로즈볼 경기장에서 다민족 연합 기도 대회가 열린 이래 매년 미국의 부흥을 위해 다민족이 기도 연합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개, 부흥, 회복”을 주제로 11월 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열린 올해 다민족연합기도회에는 많은 다민족 영적 지도자들이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기도자로 참여했다.

찰리 커크의 신앙 멘토이자, 터닝포인트USA의 의장인 랍 맥코이(Rob McCoy) 목사, 스티븐 데이비스(Steven Davis) 목사, 뉴비기닝교회(New Beginning Church)의 길버트 사라고사(Gilbert Zaragoza) 목사, 하베스트 타임 인터내셔널(Harvest Time International)의 마누엘 산틸라노(Manuel Santillano) 목사, 엘머 잭슨(Elmer Jackson) 목사, 로버트 울프(Robert Wolff) 랍비, 펑저 바이(Fengzhe Bai 중국인교회) 목사, 조



올해 다민족연합기도회는 “회개, 부흥, 회복”을 주제로 은혜한인교회에서 진행됐다. ©기독일보

나스 몰요(Jonas Muljo, 인도네시아 교회)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지도자들이 각 기도회 순서에 참여해 도전을 전하고 연합의 물꼬를 텄다.

제1부 경배와 환영은 GMI와 뉴비기닝 연합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양각나팔(Shofar) 세리머니로 대회

의 시작을 알렸다. 한기홍 목사의 환영 인사에 이어, 랍 맥코이 목사가 메시지를 나누었다.

그는 “미국은 부흥을 통해 문화가 바뀌고, 대학이 세워지고, 교육 시스템이 세워졌다”며, “미국 초기 리더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들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미국 아이들은 십계명을 외워야 했고, 입법 건물에는 하나님의 도덕법이 명시되었으며, 아이들은 그 도덕법을 배우며 자랐다. 정치 리더들은 그 법을 알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지금은 교회 내에서조차 누가

십계명을 외울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 및 한국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치와 상관 없이 복음만 전한다는 태도는 영지주의의 한 형태”라며, “복음이라는 말 뒤에 숨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동양의 종교를 탐닉하고, 마약에 빠졌던 때,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던 척 스미스 목사의 ‘예수 운동’(Jesus Movement)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그가 속한 하나님말씀 갈보리교회(Godspeak Calvary Chapel) 역시 이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고, ‘예수 운동’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개종자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며 “어떻게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서 캘리포니아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토마스 맹, 주디 한 기자
→2면에서 계속

트럼프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존재적 위협 직면”

‘특별우려국’ 재지정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존재적 위협에 처해 있다”며 미국 국무부에 해당 국가를 ‘특별우려국’ 명단에 다시 포함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수천 명

의 기독교인이 학살당하고 있다”며 “이제 미국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대규모 학살의 주범”이라며 “나이지리아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 기독교인이나 다른 어떤 집단이 지금 나이지리아에서처럼 학살당하고 있을 때, 반드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로, 최근 수년간 북동부 지역

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중부 지역의 무장 목축민 공격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오른 상태다.

국제 기독교 감시단체 오픈도어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되는 기독교인 중 절반 이상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다.

미국 내 기독교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가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나이지리아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런 잔혹 행위가 벌어지는 동안 방관할 수 없다. 전 세계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준비돼 있으며, 행동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화당 소속 라일리 무어 하원의원(R-W.V.)과 톰 톨 하원 세출위원장에게 “이 사안을 즉시 조사하고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0년, 나이지리아를 처음으

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해당 지정을 해제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들어 미 의회 내 보수 의원들은 나이지리아를 다시 CPC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국제기독교연대(ICC)’는 트럼프의 발표를 환영하며 “이번 조치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고통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경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병크럼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 상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평가상가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럼시

뱅크럼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한)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영)국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고위임의회 고문 변호사
(전)재미발행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인랜드교회 최원일 담임목사 위임예배 “시대에 뒤쳐진 것 같아도, 말씀에 목숨거는 교회”

지난 10월 26일(주일) 오후 4시 인랜드교회는 제6대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통해 새 담임목사 최원일 목사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사역을 출범했다.

PCA한인서남노회가 주관한 위임예배에는 인랜드 교회 성도들 외에, 남가주사랑의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석해 인랜드교회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응원했다.

PCA 한인서남노회 회장인 김상선 목사(위임 전권 위원회 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인랜드교회 찬양팀의 찬양, 홍순철 장로(당회서기)의 기도, 인랜드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성경봉독 사무엘하 6:1-11, 노창수 목사의 설교, 김선영 권사의 특별 찬양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창수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인간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무리 비효율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듯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계 운반 중 옷사가 즉사한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너무나 놀라운 방법과 전략



인랜드교회는 제6대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 기독교일보

을 갖고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상반된다면 내려 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각도에서 봐야 한다. 아무리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도 말씀대로 살 때,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법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가 하나님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 2부 순서로 김상선 목사의 인

도 아래 위임식이 진행되었다. 위임식은 위임서약, 위임기도, 공포, 위임패 수여, 최원일 목사 위임사, 고건주 목사(위임전권위원회 위원) 권면, 최병수 목사(인랜드교회 3대 담임목사)와 우영화 목사(PCA 서남노회 부노회장)의 축사, 박신철 목사(인랜드교회 4대 담임),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의



인랜드교회 제6대 담임목사로 위임 받은 최원일 목사. © 기독교일보

영상 축사, 김경수 장로 광고에 이어 최원일 목사 축도로 마쳤다.

최원일 목사, “지난 3개월 동안, 3년 이상의 칭찬, 격려, 사랑을 받았다”

최원일 목사는, PCA 한인서남노회 목회자들과 남가주사랑의교회 장로 및 성도들, 인랜드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부임한 지 3개월이 채 안 되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3년 이상의 칭찬, 격려와 사랑을 받은 것 같다. 인랜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

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제자 세우는 교회, 천국의 빛을 가져와 이 땅을 비추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고건주 목사(위임전권위원회 위원), 최병수 목사(인랜드교회 3대 담임), 우영화 목사가 권면하고 축사했다.

인랜드교회 제6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새로운 사역의 여정을 시작한 최원일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순장반, 새순, 사랑의순례, 제자반 등 다양한 사역을 섬겨왔다.

조셉 리기자

신춘식 교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 출판기념회 성료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에서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신춘식 교수(Ph.D., CPU 선교학 교수)의 저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행사는 CPU 정용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상명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CLC 박영호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 책은 학문과 신앙, 부흥과 선교를 하나의 맥락 안에서 엮어낸 귀중한 저술이며, 한국교회의 선교신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종국 총장(에반겔리아 대학교)은 “신춘식 교수는 현장 경험과 학문적 통찰을 바탕으로 에드워즈 신학을 현대 선교의 방향으로 확장시켰다”고 평가했다.

김용환 교수(폴러신학교)는 “총신대 시절 강단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신 박사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이번 출판을 계기로 교수와 선교사역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영호 목사(새장로



신춘식 교수의 저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 출판 기념회. ©CPU

교회)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실천신학, 특히 선교 영역을 다룬 것이 의미 있다”며 “이 책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것”이라 축하했다.

이병구 교수(GMU 학장)는 “신춘식 교수는 인도에서 같이 선교한 동역자이자 친구라고 소개하며 신춘식 교수의 연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오늘의 교회와 선교 현장이 복

음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돕는 귀한 작업”이라고 축하했다.

신춘식 교수는 인사말에서 “지계를 지던 시골 소년, 철가방을 들던 청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목사, 선교사, 교수, 저자로 부르심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스토리”라고 본인을 소개하였다. 그는 이어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운동가이자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의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에 있었다”며 그를 선교사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 “이 책이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선교사(Missionary)로 재조명하며, 이 책은 ‘두 렌즈 이론(Two-Lens Theory of History)’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과 사역을 해석한 연구서이다. 그는 인도에서 8년간 선교사로 헌신한 경험과 폴러신학교, CPU에서의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에드워즈의 삶과 사역을 ‘현장 중심의 선교신학’으로 재구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종 목사

(KWMC 대표의장), 정부홍 총장(에드워즈대학교), 권도균 박사(NLMA 사무국장) 등이 서평자로 참여했다. 이승종 목사는 “에드워즈의 헌신은 현대 선교사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고 평가했다. 정부홍 박사는 “그동안 에드워즈 연구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에 치우쳤지만, 이번 저서는 복음주의적 시각에서 선교신학을 확장한 역작”이라며 “‘두 렌즈 이론’은 독창적 방법론”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현대 선교의 할아버지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도균 박사는 “본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스코트브리지 인디언 선교에 헌신한 삶을 통해 진정한 ‘선교사-신학자’로 살았음을 조명한다”며 “그는 원주민의 권익을 위해 백인들과 싸운 변호사이자 교육자였으며,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한 선교사였다”고 평가했다. 이윤선 기자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가명훈 목사,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길 소망”

토렌스조은교회 3대 담임 가명훈 목사 취임예배

토렌스조은교회가 26일(주일) 오후 4시 가명훈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에서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설교했다.

고 목사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어려움이 많다. 가까이서 지켜본 가명훈 목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목회자였다”며 “다윗이 불렀던 슬픔의 노래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었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그 실패 속에서도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존중했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더 슬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윗은 사울의 허물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붉은 옷을 입히며 나라를 세운 점을 기억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실수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했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 목사는 “다윗이 사울의 장점을 보고 끝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긍정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적 갈등을 언급하며 “때로

는 의견이 충돌될 수 있다. 그러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야 한다. 자존심보다 영광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다”고 권면했다.

설교를 마치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들과 갈등이 있었다. 아들이 집사님과 집에서 같은 공간에 있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 교회는 333 법칙이 있는데 자녀를 위해 하루 3번 기도, 3번 신체 접촉, 3번 칭찬이다. 이를 실천했을 때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긍정적으로 볼 때 새 역사가 일어난다. 자녀와의 관계도, 교회 공동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2부 취임사에서 가명훈 목사는 “화려하거나 세상에 알려지는 교회를 꿈꾸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제자를 삼는 교회, 모두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함께 협력하며 복음의 본질을 불드는 공동체가 되자”고 했다.

이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토렌스조은교회가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가명훈 목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축사에서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는 교회가 ‘굿처치(Good Church)’에서 ‘그레이트처치(Great Church)’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며, “이 일은 담임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첫째로, 담임목사의 리더십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둘째로, 담임목사의 리더십을 극대화해주길 바란다. 잘하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주면 교회는 자연히 발전하게 되어 있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무장된 은사와 능력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또 “리더십을 믿어줘야 한다”며

“실수할 때에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성도의 마음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담임목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잘하나 못하나 뒤에서 판단하기보다 동역자로서 함께 밀어주면, 목회자가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며 “이런 협력과 믿음 속에서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축하영상에서 이해진 목사(아틀란타벤엘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에 고난과 광야의 길을 허락하심으로 단단한 사역자로 연단하셨다. 온실이 아닌 광야의 길을 걸으며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교회로 보내시어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축하영상에서 김우준 목사(지구촌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다”며 “이분이려면 토렌스조은교회 성도들을 품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리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상훈 목사(미성대)는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되기를 권면한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며 “성도들은 담임목회자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김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달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되, 모든 일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어 고현중 목사(디사이플교회)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고, 가명훈 목사님이 그 은혜를 입은 것 같다”며 “기도와 동역으로 함께한다면 이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고 권면했다.

가명훈 목사는 미주성결교회 소속 시카고 북부 릭컨사이어 한인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한 바 있다.

이날 예배에서는 서종학 목사(파사데나 주님의교회)의 대표기도, 김선이 원로사모의 취임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모든 순서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멜리데교회 임직 감사예배 “영적인 눈 열려 사명의 길로 가자”

멜리데교회(고귀남 목사)는 26일 오후 5시 교회에서 임직 감사예배를 드리고, 10명의 권사와 3명의 안수집사를 새롭게 세웠다.

예배는 노회장 인형식 목사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눅 24:13-17)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인 목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며 “우리도 신앙의 위기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환경만 바라보게 되지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곳 멜리데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루살렘이 되길



멜리데교회는 26일 오후 5시 교회에서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 기독교일보

바라다”고 전했다.

이어진 권면에서 강평근 목사(증경노회장)는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은 더 좁은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를 힘쓰는 일꾼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천국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며 “거듭난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답게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신상원 목사(증경노회장)는 축사에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임직받은 여러분이 바로 그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기 바란다.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했다.

임직자 대표로 답사를 한 제명환 안수집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담임목사님의 영적 지도에 감

사드린다. 오늘 주신 말씀과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교회 중심·성경 중심의 신앙을 실천하겠다”며 “명예가 아닌 섬김으로, 분쟁이 아닌 화목으로 충성하겠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임직 감사예배는 말씀과 기도, 찬양이 어우러진 은혜의 시간이었다. 교회는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겸손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 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고귀남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강은덕 목사(총회서기)가 기도를, 박재웅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조셉 리 기자**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2026” 달라지는 혜택, 많은 약 보험의 많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Annie Moon이 필요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실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 Disccaimer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5 organizations which offer 97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your options."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우리 집 아이들도 미전도 종족? 가정예배가 핵심”

월드미션대학교 산하 PCCE (퍼시픽교육문화센터) 최윤정 교수, 김지용 전도사 인터뷰

저녁 8시, 남가주의 한 가정. 아이들은 숙제를 마치고 부모와 함께 모였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10분 남짓,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 짧지만, 가정예배의 현장이다.

월드미션대학교 산하 PCCE(퍼시픽교육문화센터, pcce.wmu.edu/)는 바로 이런 순간들을 확장하고자 설립됐다.

다음 세대, 새로운 ‘미전도 종족’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Luis Bush)는 선교의 개념이 ‘지역 중심’이 아니라 연령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만 4세에서 14세 사이, 즉 유치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아이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다. 이제 선교는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 집과 우리 아이에게서 시작된다.”

이 말은 곧, 부모와 가정의 수직적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뜻한다. 북미 기독교 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가정에서 자녀와 어떤 신앙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3%만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신앙 이야기를 나눈다고 답했다.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극히 소수였다.



PCCE 행정 및 연구 담당 김지용 전도사와 PCCE 디렉터 최윤정 교수.

가정예배, 작은 시작이 중요하다 김지용 전도사(PCCE 행정, 연구 담당)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권면한다. 찬양이 없어도, 특별한 예배 형식이 없어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충분한 예배가 된다고 말한다.

우선, 10~15분, 짧게라도 시작하라. 핵심은 ‘예배’라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이다. 엄숙한 분위기, 신학적인 준비가 없어도 괜찮다.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몇 시간씩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함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녀가 어려서 성경을 읽기가 어렵다면 성경이야기를 들려준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유의할 점이 있다. 말씀 시간이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 구성원

이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배 시간을 정해두고 30분 전부터 가족 구성원에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단위로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가족 중 누군가 함께하지 못해도 나머지 가족은 예배에 참석하며, 함께하지 못한 구성원을 위해 기도한다. 외출 중이거나 차 안에 있다면, 짧게 돌아가며 감사 제목을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열쇠는 부모에게 있다. 부모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할 때, 아이들의 신앙도 살아난다. PCCE는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부모 교육을 제공하며, 한인 가정과 교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PCCE 디렉터 최윤정 교수(World Mission University 부총

장)는 주일학교 시간만으로는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앙교육은 교회와 주일학교에 맡겨왔다. 하지만 주 1~2시간의 주일학교 시간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깊게 심어주는 어렵다.”

가정예배는 이런 틈을 메우는 도구다. 일상 속에서 부모의 신앙을 목격하며 자녀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루를 마치며 간단히 감사한 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을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감사를 나누는 것만으로 예배가 됩니다.”

PCCE는 가정예배뿐 아니라 세대 통합예배를 통해 신앙의 전수를 돕는다.

최윤정 교수는 “이스라엘의 부모가 출애굽의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했듯, 오늘 세대로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대통합예배에서는 자녀를 예배의 참여자로 세운다. 찬양 인도자나 중보기도자로 섬기며, 신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

온라인 부모 교육

PCCE는 부모 교육과 코칭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한다. 올해는 4주에서 6주 과정으로 부모관계 코칭, 부모 코칭 세미나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내년에는 Parent Association을 만들어, 신앙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을 모아 가정 예배와 부모

코칭, 평신도 사역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형식의 가정 예배

PCCE는 가정예배 운동의 일환으로, 미주복음방송과 함께 가정예배 공모전도 진행했다. 각 가정이 드리는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공유해, 부담 없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주일 예배처럼 엄격한 순서가 아니더라도, 간단히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형식의 예배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공모전에는 각 가정의 개성과 상황이 담긴 예배들이 소개됐다.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거나 말씀을 나누며 참석자가 아닌 진행자로 참여하는 모습, 할머니·할아버지부터 손주 세대까지 삼대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렇듯 때부터 꾸준히 가정예배를 드렸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줌(Zoom)으로 예배를 이어가는 가정도 있었다.

최윤정 교수는 소통과 신앙의 단절을 겪는 이민 가정에, 가정예배가 가정을 하나로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정예배와 세대 통합예배를 통한 신앙전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다. PCCE는 가정예배와 세대간 통합예배를 지원하며 부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음 세대를 거룩한 그릇으로 세우도록 돕고 있다.

주디 한, 토마스 맵 기자

→1면 기사 <다민족 기도회>에 이어서 그러면서, 재정적 부채, 가정의 파괴와 트랜스젠더 운동, 낙태 증가 등 캘리포니아를 뒤덮은 영적 위기 상황을 열거하며, 기독교가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찰리 커크는 젊은 세대들에게 외쳤다. 그들은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은 세대고 가장 자살을 많이하는 세대”라며, “선교는 사랑받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찰리 커크가 있는 곳에 수많은

시위 세력들도 있었다. 그러나 찰리가 죽음 당하기 전, 하나님께 반응하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곳에 있었다”며, 이것을 “제자도의 부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최근 미국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며, 아칸소대학교 1만 명, 오클라호마 9천 명, 조지아주 1만 명, 플로리다 대학 6천 명, 플로리다 주립대학 7천 명, 텍사스 A&M대학 1만 명 등이 목록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부 행사로 진행된 기도회는 총


5개 파트로 구성됐다. 회개를 위해 신승훈 목사, 부흥과 회복을 위해 데이비드 디아즈 목사(공동대회장),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김민아 대표(빌드업 코리아), 미국의 리더십을 위해 고태형 목사(공동대회장), 기도가 필요한 나라들을 위해 볼프강 코바첵(Wolfgang Kovaček)이 각각 기도했다.

신승훈牧사는 “미국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금주법을 만들고 여성과 어린이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

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적 윤리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가르치며, 학생인권법으로 학생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민아 대표(빌드업 코리아 대표)는, 진리가 공격 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다음 세대가 깨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의 전쟁 한 가운데 서 있다. 이 전쟁은 교실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위한 한 문장에서 시작되어, 유튜브 알고리즘, 틱톡, 넷플릭스의 장면 속에서, 거짓이 찬양받고 진리가 조롱받는 미디어 속에서 이어진다.”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시 한 번 군대를 일으키며, 잠든 영혼들을 흔들며 깨우고 계신다.”고 말했다.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에서만 가능한 혜택



FREE
RIDE

한인 기사 무료 라이드 서비스

한국인 기사가 편안히 택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택으로 무료로 모셔다드립니다.



초고속 당일 병원 허가서 발급

미국에서 가장 빠른 리퍼럴 시스템과 승인 절차로 당일 승인받아 바로 진료 가능합니다.



시니어 전문 의료 네트워크

2,500명이 넘는 시니어 진료로 특화된 우수한 실력의 의료진들이 언제나 대기합니다.



남가주 최다 입원치료 가능

미주 내 80개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편하게 수술 및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문화 생활 혜택

독점적으로 각종 공연, 전시, 축제, 강연, 스포츠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는 헬스플랜



888 - 847 - 3098

“미전도종족 선교, 다시 초점 맞춘다” ... 한선지포 개막

국내외 선교 지도자들, 오는 6일까지 전략 논의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최하는 제23회 한국선교지도자 포럼(한선지포, KMLF)이 3일 경기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개막했다. 오는 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 선교 지도자와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 대표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전도종족 선교 재조명(Refocusing Missions to the UPG/UUPG)’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선지포는 매년 한국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선교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대표적 선교 포럼이다. 올해는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미전도종족(UPG, Unreached People Group)과 비접촉 미전도종족(UUPG,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선교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개회예배 설교는 이길재 선교사(더 스토리 대표)가 전했다. 이 선교사는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인용하며 미전도 종족 선교를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오픈도어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박해지수 국가 순위 1위는 북한이다. 1~10위까지 나라는 위도상 ‘10/40창’에 위치하고 있다. 미전도종족은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며 목회자와 사역자가 없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을 지칭한다. 주님의 복음 소식을 듣지 못하는 전 세계 인구는 대략 18억 명으로 추산된다. 주님은 모

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다시 오겠다고 선언하셨다”고 했다.

이어 “2017년 미얀마 로힝야 종족 70만 명이 국경을 넘었고 1만 명이상이 학살당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국경을 넘은 시리아 난민들은 1,400만 명으로 추산됐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이들에게 선교사들은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렇게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었다”며 “경계를 넘은 성경 인물들은 아브라함, 롯, 빌립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경계를 넘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는 종교개혁 이후 300년간 담보상태였던 세계 선교를 최초로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남겨진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민족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러다가 1866년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불었던 서양인 학살에도 평양 대동강에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다. 그러다 조선 군관에게 붙잡힌 토마스 선교사는 27번이나 목이 칼로 내리침을 당하며 죽임당했다.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는 조선을 증오하기보다 조선 선교를 위해 기도했고, 이후 존 로스 선교사는



한선지포가 열리는 모습

만주 지역에 들어와 조선인으로부터 직접 조선어를 배우는 등 조선 선교에 동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887년 그는 신약성경의 한글 번역을 완수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접한 이복 땅 조선인들은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 조약을 기점으로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입국 이후 한민족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선교사는 “조선이 복음을 듣고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갔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성경이 없는 언어는 3500여 개다. 우리가 복음의 수혜를 받았듯 이제 힘써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힘쓰자”고 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FTT(Fini-

shing The Task)’ 전략을 중심으로 미전도종족 복음화 사역을 이끌어온 미국 남침례교 해외선교부(IMB) 리더십이 대거 방한했다. 폴 치트우드(Paul Chitwood) 총재를 비롯해 제이콥 보스(Jacob Boss) 부총재, 그렉 만(Greg Mann) 아시아태평양 지역 책임자, 자로드 데이비스(Jarod Davis) 세계화전략 책임자, 밴스 워튼(Vance Worten) 아시아태평양 선교연구원 등 핵심 인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UPG 선교 전략적 재조점’(폴 치트우드) △‘UPG 선교 우선순위의 신학적·선교적 근거’(제이콥 보스) △‘IMB 사례와 통계적 분석’(그렉 만) △‘IMB 글로벌화와 한국교회의 협력 모델’(밴스 워튼)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50분 강의, 10분 테이블토의, 90분 그룹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COME선교회, HOPE선교회, 한국기독교침례회 해외선교회(FMB),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OMC) 등 주요 단체들이 UPG 사역 모델을 공유하며, 포럼 이후 각 교단과 단체가 실제 현장 전략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KWMA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 세계 선교사의 3%만이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현실 속에서, IMB처럼 80% 이상이 UPG 사역에 집중하는 역행 전략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본질적 과제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모임이 한국 선교계가 UPG와 UUPG 선교로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준비위원장 송재홍 목사(기성총회 해외선교국장)는 “이번 포럼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한국 선교의 방향성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IMB의 데이터 기반 전략을 통해 교단과 선교단체가 보다 효과적인 선교 모델을 수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대홍 KWMA 사무총장도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여전히 미전도종족에 속해 있다”며 “한국 선교계가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복음의 미만의 과제를 완수할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형구 기자

신앙 이유로 사형 선고 받은 수단 기독교인 “수감 중 성경 몰래 읽어”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마지막 정부 거점 옐파세르(EI Fasher)가 함락된 이후, 가톨릭 구호단체 ACN(Aid to the Church in Need)가 현지 신자를 통해 참혹한 상황을 전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수단은 신속지원군(RSF)과 수단군(SAF) 사이의 내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지난해 4월 시작된 옐파세르 포위전은 최근 수단군이 철수하면서 RSF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모두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공격과 인권 침해로 비판받고 있다. 장기화된 전투로 수백만 명의 주민이 피란길에 올랐으며, RSF는 난민촌을 군사 기지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ACN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마리암 이브라힘(Mariam Ibra-



마리암 이브라힘. © Aid to the Church in Need

him)이라는 수단 기독교인 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녀는 2014년, 이슬람 율법 위반 혐의로 사형과 100대의 태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혐의는 ‘배교’와 ‘간통’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

문”이었다.

이브라힘은 “나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자랐고, 같은 신앙을 가진 남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며 “그것이 죄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2013년 크리스마스를 감옥에서 맞았고, 수감 직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첫날 밤은 두려움뿐이었어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쪽 가족은 나를 버렸어요. 언론은 나를 ‘부정한 자’, ‘배교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도 그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브라힘은 “성경을 몰래 읽기 위해 성경 페이지를 찢어 머리카락 사이에 숨겼다”며 “화장실 안에서만 몰래 읽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지금도 그때의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며 “사람들이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고 물으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많은 나라에서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테러 행위로 간주됩니다. 성경은 위협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브라힘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과 이탈리아 정부의 개입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ACN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 ‘세계 종교의 자유 2025’에 따르면, 수단의 종교 박해는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단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이 기독교인 등 소수종교 박해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54억 명)가 “심각한 수준의 종교 자유 침해가 존재하는 국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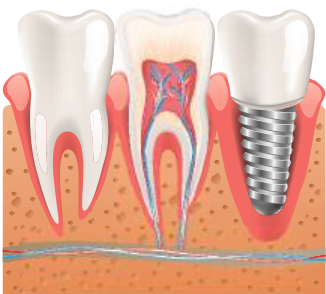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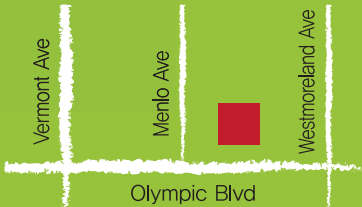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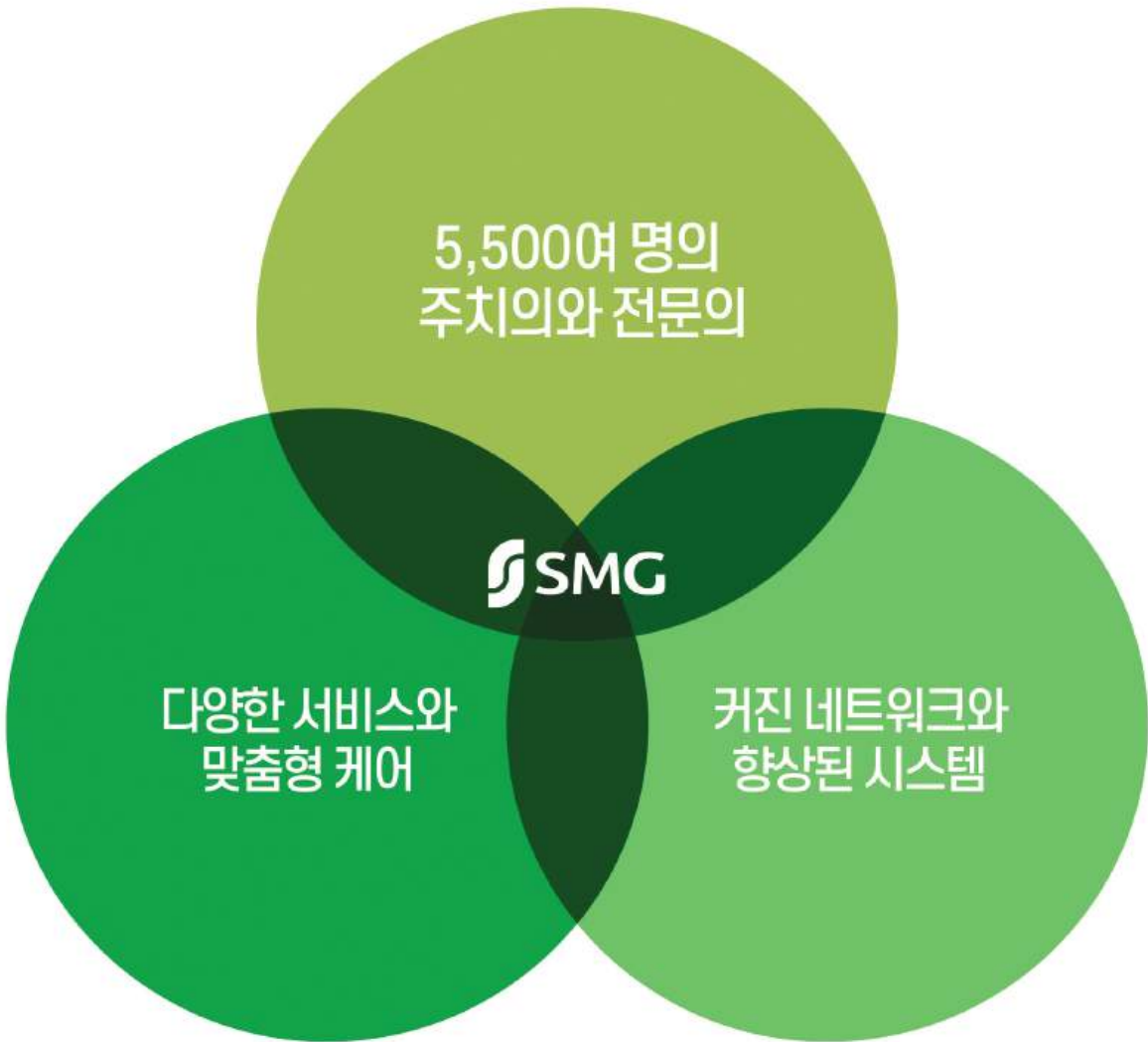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섬세한 진료와 편안한 서비스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문의전화: **800.611.9862**



홍보대사 **고두심**

SMG
카카오톡 채널에
방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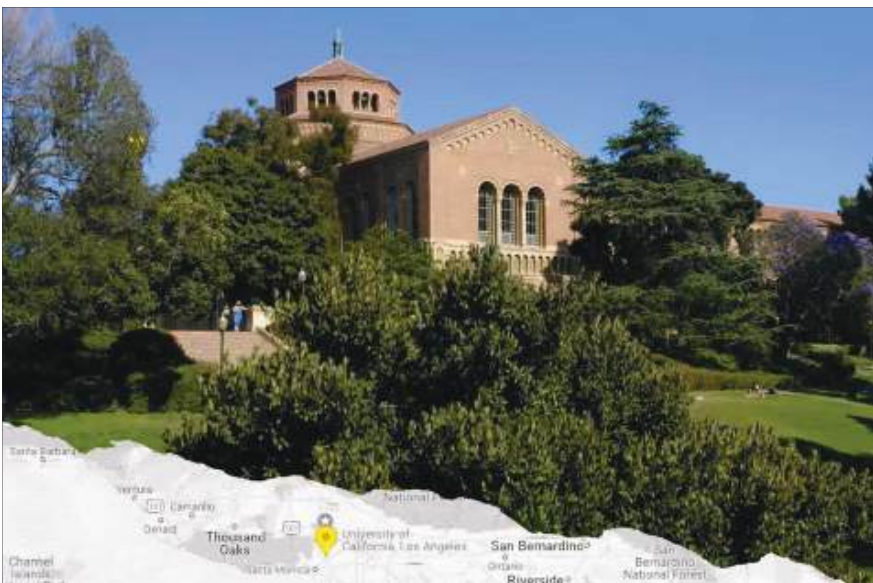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웰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女 화장실에 男 출입’ 항의하면 괴롭힘?

美 캘리포니아 대학교, 트랜스젠더 교육 강요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의 여러 대학들이 주(州)의 ‘괴롭힘 방지법’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수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이하 UC) 시스템 전반에서 모든 학생은 ‘SHAPE’(성희롱, 차별 금지,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이 필수 온라인 교육 및 테스트 모듈은 “트랜스젠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있는 것에 항의하는 행위”를 적대적인 환경 조성으로 규정하며, 괴롭힘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학생들은 학기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해당 모듈의 모든 질문에서 만점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보수단체 ‘영 아메리카 재단’(Young America’s Founda-tion, 이하 YAF)이 지난달 처음 공개한 SHAPE 교육의 스크린샷에는 ‘적대적인 환경’을 “누군가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 ©https://www.ucla.edu/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대명사를 사용하는 특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으로 정의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 다른 모듈 예시에는 “내 이름은 모나이고 트랜스젠더다. 내 동급생 제인은 나를 내가 성전환하기 전 이름이었던 제임스라고 계속 부르고, 내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때 불평한다. 나

는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매우 무례하다고 느끼고 이것이 멈추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떤 유형의 금지 행위인가?”라는 사례가 제시됐다. 이 질문에는 ‘성적 착취’, ‘관계 폭력’, ‘대가’, ‘적대적인 환경’ 등의 보기 중 ‘적대적인 환경’을 선택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모듈은 “실제 이름이 아닌

전환 전 이름을 의도적으로 부르는 행위(‘죽은 이름 지정’)는 성희롱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성희롱 및 차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 2024년 제정 법률 ‘AB 2608’에서 비롯됐다. 이 법은 성희롱 방지와 괴롭힘 금지를 위한 교육 기준을 강화했으며, 후속 법안 ‘AB 2925’는 괴롭힘의 범위를 ‘적대적인 환경 조성’으로 확장했다.

UC 샌디에이고, UC 산타크루즈, UCLA, UC 버클리, UC 어바인 등 여러 UC 캠퍼스가 SHAPE를 채택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이 SHAPE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서 정한 표준과 일치하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영아메리카재단의 스펜서 브라운(Spencer Brown) 대변인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현실과 과학을 부정하는 자들은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굴복하고 여학생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제 대학을 더 이상 고등교육의 장소라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생물학적 성에 따라 화장실이나 라커룸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지만, 여학생들에게 생물학적 남성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가족협의회(California Family Council, CFC)의 그렉 버트(Greg Burt) 부회장 역시 “대학이 의견 불일치를 괴롭힘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세뇌의 원동력이 된다”며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성경적 믿음을 침묵시키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위장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CFC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자유를 옹호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미셀 기자

WEA 신임 의장에 갓프리 요가라자 선출

이사들도 교체… 신임 사무총장에 보트루스 만수르 인준

세계복음주의연맹(WEA) 국제이사회(IC) 신임 의장으로 갓프리 요가라자(Godfrey Yogarajah) 현 아시아복음주의연맹(AEA) 회장이 선출됐다고 WEA 측이 30일 발표했다. IC 이사들도 새로 선출했다.

서울에서 지난 27일부터 총회를 갖고 있는 WEA는 총회 셋째날인 29일 이사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신임 사무총장에는 보트루스 만수르(Botrus Mansour)가 인준됐다. 요가라자 신임 의장은 인도 푸네에 있는 유니언성경신학교를 졸업했고, 세계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국제 옹호 단체로부터 ‘선한 사마리아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종교의 자유와 소수

자 권리 분야에서의 업적으로 핀란드 순교자 친구들(the Friends of Martyrs Finland)로부터 ‘프로 피데(pro fide)’ 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에는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국가에 대한 공로로 두 번째로 높은 국가 훈장인 ‘데사마냐(Deshamanya)’라는 칭호를 받았다.

WEA 국제이사회는 그가 △수십년간 복음주의 운동을 위해 활동해 온 점과 △무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점 △불교 및 회교권 국가인 스리랑카에서 종교의 박해를 무릎쓰고 교회를 지켜온 점 등을 높이 인정해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한다.

요가라자 신임 의장은 “국제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지난 30년 동안 WEA를 섬겼는데,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그는 또 “한국교회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다”며 “(조직위) 한국 신학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서울)선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했다.

신임 만수르 사무총장은 1965년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태어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비영리 경영(MBA)을 공부하며 기독교 교육과 선교적 사역에 헌신해 왔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나사렛침례학교(Nazareth Baptist School)를 이끌며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 헌신하고 있으며, 1996년 나사렛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2001년 장로로 임직해 교회 현장 사역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 복음주의교회연합 의장, 요르단 및 성지 복음주의 연합 사무총장, 나사렛 빌리지 부이사장, 로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화해 이니셔티브’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기독교 교육, 종교 자유, 중동의 화해와 평화 문제에 대해 아랍어, 히브리어, 영어로 활발히 집필 하고 강연하며, 『When Your Neighbor is the Savior』(2011), 『Looking from the Precipice』(2021) 등을 집필했다.

만수르 신임 사무총장은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전 훌륭한 분들의 사역을 뒤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 전 세계에 복음주의 연맹들이 있는데 잘 섬기기를 소원한다. 한국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WEA는 국제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도 새로 뽑았다. 이에 총회 참석자들은 요가라자 신임 의장을 비롯해 만수르 신임 사무총장과 신임 이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갓프리 요가라자 신임 의장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 +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킷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 +tax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 +tax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엘파서 대학살, 남수단 난민 위기 악화시켜... 국제사회 긴급 대응 필요



수단 기독교인(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오픈도어.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엘파서(El Fasher)에서 발생한 대학살로 인해 남수단 난민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국제 구호단체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가 밝혔다.

위성사진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수단 의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이 10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수단군으로부터 엘파서를 장악한 뒤, 현지 병원에서 약 460명을 총격으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천 명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마을을 탈출하며 이미 수백만 명이 넘는 난민 행렬에 합류했다.

크리스천에이드 남수단 지부장 제임스 와니(James Wani)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와의 인터뷰에서 “총돌 이후 이미 100만 명이 넘는 난민과 귀환민이 남수단으로 유입됐다”며 “엘파서 함락 이후 사흘 만에 국경 지역 난민 유입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부 바르엘가잘 지역은 가장 가까운 입국 지점으로, 앞으로 더 많은 피난민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곳에서 들려오는 참혹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2023년 시작된 수단 내전으로 1,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으며, 이 중 약 860

만 명은 국내 실향민, 300만 명은 인접국으로 피신한 난민으로 추정된다. 유엔은 현재 수단을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적 위기 지역”으로 규정했다.

와니 지부장은 “렌크(Renk)의 크리스천에이드 임시 수용소는 원래 4,0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12,000명이 머물고 있다”며 “식량, 위생, 보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어린 소녀들과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남수단과 수단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가 연대해야 한다”며 “기도와 더불어 식량, 주거, 물, 교통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도움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크리스천에이드는 현지 파트너 단체 ‘휴머니티 연합(Coalition for Humanity)’과 협력해 현금 지원과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 폴커 튀르크(Volker Türk)는 이번 학살을 “끔찍한 인권 유린”이라고 규정하며 RSF에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 통로 확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인도 대법원, ‘강제 개종’ 허위 혐의 벗겨...기독교인들 3년 만에 무죄 판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대법원이 허위 개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든 형사 절차를 전면 무효화했다고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인도 내 ‘강제 개종법’이 소수 종교인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나온 중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피해자들에게 3년 만에 법적 정의가 실현됐다.

지난 10월 17일, 대법원 판사 J.B. 파르디왈라와 마노즈 미스라가 공동으로 작성한 158쪽 분량의 판결문은, 2022년 4월 이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강제 개종 혐의’로 기소된 목회자 비자이 마시(Vijay Masih) 목사, 브로드웰 기독교 병원 직원, 샘 히긴보텀 농업·기술·과학대학(SHUATS) 관계자 등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진 모든 형사 사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법이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정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2022년부터 등록된 사건번호 224/2022, 47/2023, 54/2023, 55/2023, 60/2023 등 모든 사건과 관련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4년간 부당한 혐의에 맞서 싸워온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법적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 사건은 2022년 4월 14일 ‘세족목요일(Maundy Thursday)’에 시작됐다. 힌두 극우단체 비슈와 힌두 파리샤드(VHP) 소속 인사들이 파테푸르(Fatehpur) 지역의 복음교회 예배당을 포위하고 경찰을 불러, 90명의 힌두교인이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마시 목사를 비롯해 35명의 신자를 체포했으며, 일부는 100일 넘게 구금되었다.

대법원은 당시의 제1보고서(FIR)가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VHP 간부로, 기존 법률에 따라 개종 사건의 고발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만 가능하다는 규정

을 위반했다. 또한 이후 등록된 4건의 추가 고발서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발자들의 진술이 ‘복사된 듯 동일한 문구’로 작성되어 있었고, 서류의 전자 날짜도 거의 동일한 시각으로 찍혀 있어 “기계적으로 조작된 증거”라고 판시했다.

한 사례에서는 두 명의 고발인이 자신의 이름을 잘못된 인물명으로 기재했으며, 일부 진술은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라 주장한 이들이 이전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VHP 회원이라고 진술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다수의 고발이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68명의 기독교인이 누명을 썼으며, 이 중에는 11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5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17세 청소년의 나이를 23세로 조작해 구금하기도 했다. 한 소녀는 체포를 피해 한밤중에 급히 피신해야 했다. 브로드웰 기독교 병원 선임 행정관 제이 메린(J. Merin)은 “57명의 병원 직원이 직장을 잃거나 타 지역으로 강제 전출됐다”며 “병원 운영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이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서 환자 수가 하루 50명에서 7명 이하로 급감했고, 수입도 급격히 줄었다.

복음교회 인도연합회(ECI)의 총무 에드윈 웨슬리(Edwin Wesley) 목사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기독교인을 겨냥한 조직적 공격이었다”며 “많은 교인들이 직장을 잃고,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이 네 차례나 조사했지만, ‘힌두교인 90명이 개종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단 한 명의 증인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독립교회를 이끄는 조세 프라카시 조지(Pastor Jose Prakash George) 목사는 2023년 2월 체포되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져 감사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에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온) 오전 8시 (화-토) - 오전 6:00
3부예배(자세대에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부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써니킴 담임목사

주일에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에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에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종부기도회 오전 10:00 분당

동양선교교회

OMC 중동분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2부예배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종부기도회 오전 10:00 분당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에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에배 1부 오전 9:0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에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김창섭 담임목사

주일에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새벽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한현중 담임목사

주일에배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새벽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국윤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충현선교교회

블러셔(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choonghyun.org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주일에배 1부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3435 Wilshire Blvd. # 570(SF), L.A. CA 90010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기독교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기독교일보

사우스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항영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나,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경한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월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창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꾼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유영희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 1부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루비오 美 국무 “찰리 커크, 한국교회 상황 걱정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그렉 로리 목사와 대담하고 있다. ©harvest.org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충격으로 사망한 **故 찰리 커크**를 언급하며 그가 생전 한국교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28일 공개된 팟캐스트 ‘그렉 로리 쇼’(The Greg Laurie Show)에서 미국 하베스트처치 그렉 로리 목사와 대담하며 “찰리가 세상을 떠나기 닷새 전에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그는 당시 한국에 있거나 막 돌아오는 길이었고, 한국 내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다음 번에 만나면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했지만 불행히도 그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커크가 한국교회와 관련해 구체적 어떤 것을 우려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커크는 피살되기 전 한국에서 열린 ‘빌드업코리아 2025’ 행사에 참석해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압수수색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했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수사당국의 교회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의 청년 보수운동였던 찰리 커크는 지난달 10일 미국 유타주 소재 대학 캠퍼스에서 연설 중 충격에 사망했다. 그는 미국 최대 청년 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USA의 공동 창립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조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진영 기자

윌리 라이스 목사, 美 남침례회 차기 회장 출마 선언



플로리다 클리어워터 칼바리 침례교회의 윌리 라이스 목사. ©YouTube/Calvary Church

미국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의 갈보리 침례교회(Calvary Baptist Church) 담임목사 윌리 라이스(Willy Rice, 62)가 내년 열릴 남침례회(SBC) 연차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나설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스 목사는 지난 10월 31일(이하 현지시간)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회는 언제나 개혁 중에 있다”며 “우리 시대의 갱신(renewal)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 논제를 붙인 종교개혁 기념일(Reformation Day)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교회는 끊임없이 수정과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새로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남침례회에는 진지한 성찰과 겸손한 교정이 필요한 우려들이 존재한다”며 “이제는 새로운 회복과 갱신의 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년 남침례회 연차총회는 내년 6월,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오렌지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라이스 목사는 40년 넘게 목회자로 사역해왔으며, 과거에도 SBC 회장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현 회장 클린트 프레스리(Clint Pressley)는 2022년 라이스 목사를 추천하며 “그는 남침례회의 본질과 비전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라이스 목사가 속한 교회가 과거 성적 학대 전력이 있는 인물을 집사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라이스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올해 열린 SBC 총회에서 라이스 목사는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ERLC) 폐지를 제안하는 안건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ERLC를 수년간 옹호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며 “외부 정보 성향 단체의 재정 지원과 연계 의혹이 있었지만 회개나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라이스 목사는 “ERLC를 완전히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정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총회 표결에서 56.89% 반대, 42.84% 찬성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ERLC 전 회장(1988~2013) 겸 CP 편집위원인 리처드 랜드(Richard Land)는 “기관 해체는 해결책이 아니다”며 “논쟁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대화와 토론이지, 조직의 절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테네시 머프리스버로의 원처치(One Church) 담임목사 스티브 윌리스(Steve Willis)는 ERLC의 친생명(pro-life) 사역을 언급하며 “ERLC만큼 태아의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수호한 단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음파 장비를 임신 갈등 상담센터에 제공하는 등 실질적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귀중한 기관을 계속 지지하자”고 호소했다.

현재 SBC 회장인 프레스리 목사는 2024년에 선출되어 연임 중이며, 규정상 내년에는 임기를 마친다. 이에 따라 2026년 총회에서는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라이스 목사는 “우리 교단은 개혁과 갱신을 통해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며 “그 여정에 자신이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인도, 기독교 박해 여전... 선교사 폭행 · 기독교인 경제적 보이콧 심화



인도 지도 ©mapswire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가 여전히 심각한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에 따르면 인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로, 공산국가인 중국과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힌두 극단주의 세력의 폭력과 차별이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도에서는 두 건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첫 번째 사건은 선교사들이 탄 버스가 힌두교도들에 의해 습격당한 일이다. 지난 10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선교사들이 지역 주민의 초청으로 주타나(Juthana) 마을로 향하던 중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현장 영상에는 선교사들의 비명이 담겨 있으며, 가해자들은 선교사들이 “돈을 주며 개종을 시도하고 힌두 신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세계기독교연대(CSW)는 “경찰이 초기에 제대로 개입하지 않았고, 결국 8명의 경찰이 직무태만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CSW 창립자 머빈 토머스(Mervyn Thomas)는 “이번 폭력 사태는 평화로운 종교 소수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불관용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정의 구현과 종교 소수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사건은 인도 남부의 한 어촌 마을에서 발생했다. 기독교인 주민들이 마을 여신 신전을 위한 기금 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힌두교 이웃들에 의해 사회·경제적 보이콧을 당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기독교인 약 100가구가 공동 어장 출입 금지, 물품 구매 거부, 사회 행사 참여 제한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들은 기본적인 생계 활동조차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지 한 기독교인 여성은 “집 바로 옆 사람과 대화만 해도 벌금을 물게 된다. 가게에서도 물건을 팔지 않아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다”며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마을에서 이제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어 너무 슬프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비힌두교도는 신전 건립에 기여할 의무가 없지만, 지역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해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으나, 힌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미경 기자

WEA, 기술 전문가 패널, 인공지능과 제자훈련 논의

세계복음연맹(WEA) 총회가 열린 10월 29일 오전, 한 패널 토론에서는 교회 인공지능(AI)을 다룰 때 명확한 성경적 윤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은 AI를 “인간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기술”로 규정하며, 교회가 이에 대해 신학적 명확성, 목회적 돌봄, 그리고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션은 ‘AI and Faith’ 이사회 멤버인 브렌다 응(Brenda Ng)이 사회를 맡았으며, 윤리학자이자 목회자인 샘 D. 김(Sam D. Kim), ‘AI and Faith’의 자문위원이자 연구원인 퀸틴 맥그래스(Quintin McGrath), 모네시대학교의 크리스 왓킨(Chris Watkin) 부교수, 그리고 가르간추아 그룹(Gargantua Group)의 CEO 닉 김(Nick Kim)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AI가 일상과 사역, 그리고 경제 전반에 깊이 스며드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어떤 위험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맥그래스는 발표에서 복음주의 진영 내에도 AI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시각과, 반대로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공존한다고 지적하며, 그 사이에서 “책임 있고 윤리적이며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AI”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대응해야 할 네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인간 정체성의 위기 — 초인류주의(transhumanism)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개념을 흔들고 있다. 둘째, 신뢰의 붕괴 — AI의 환각, 딥페이크, 비투명성(opacity)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셋째, 경제적 정의, 디지털 격차와 일자리 대체가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 환경적 책임, AI 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 물, 자원 사용이 창조 세계의 보전에 위험이 되고 있다. 맥그래스는 이러한 네 가

지 위기는 동시에 교회가 응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맥그래스는 교회 사역에 AI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신뢰(framework) 체계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AI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학적 정합성, 인간적 관계를 강화하는 관계적 영향, 인간의 필요를 공정하게 충족시키고 불건전한 의존을 조장하지 않는 유용성과 정의, 창조 세계에 대한 장기적 책임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성과 청지기 직분, 그리고 AI 활용이 공개적이고 이해 가능하며 통제 가능한 투명성과 책임이 포함된다.

그는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AI 기준을 교회 사역에 맞게 재해석하고, 윤리적 성찰과 규정 준수 확인, 독립적 검증을 병행할 것을 권장했다.

왓킨은 교회가 AI를 평가할 때 정치·상업적 관점이 아닌 성경의 전체 서사인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 데이터 센터가 위치한 공동체, AI 도구가 적용되는 사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AI를 정책이나 문화적 관점으로만 분석한다면 “성경의 깊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신 신자들은 알고리즘 시대에 능력과 책임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전체 계시(whole counsel of God)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맨해튼 출신의 윤리학자이자 목회자인 샘 D. 김은 성경과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단절과 회복(rupture and repair)”의 리듬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바벨탑에서 인쇄술 발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적·사회적 혼란은 심판과 갱신을 동시에 가져오며, 인간을 흐뜨리면 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왔다고 설명했다.

신미셸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9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9)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도회)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아)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종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최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참살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주지사 후보의 후원회장 랜스, 에스더 김 부부

갈보리 장로교회 부흥회서, 체 안 후보 메시지 통해 하나님 만나

랜스 김과 에스더 김 부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체 안 (Che Ahn/한국명 안재호) 후보의 후원회장이다. 랜스 김 부부는 최근 열심히 한인 타운을 누비며 체안 후보를 알리고 있다. 랜스 김 부부는 체안 후보가 섬기는 하비스트 반석교회 장로다. 랜스김 장로는 체안 후보를 목사로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큰 축복을 받았다.

랜스 김 장로는 10대 초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 온 1.5세대, 아버지(김영배)는 육군 소령 출신이고 어머니(정명숙)는 간호 장교1기로 육군 대위 출신이다. 하지만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았다. 랜스의 아버지는 편의점 가게를 운영했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다. 아버지 사업에 어렵게 되자 랜스김은 24살에 리쿼(Liquor) 가게를 운영하며 가장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사업은 쉽지 않았다. 강도만 7번 당했다. 물론 생명의 위협도 느꼈다. 랜스는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방향도 했다. 동생의 어려운 삶을 아는 누님(미셸 송 집사)의 권유로 누님이 출석했던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당시 담임 한기홍 목사) 영어부 부흥회에 참석했다.

당시 청년 랜스 김은 삶의 막대한 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믿음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고 내 삶을 바꿔 주세요!'라는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을 때였다. 하나님

랜스 김과 에스더 김 부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체 안 (Che Ahn/한국명 안재호) 후보의 후원회장이다.

은 그를 부흥회 강사님의 메시지와 안수기도를 통해 만나주셨다. 랜스 김 장로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과 그 목사님을 평생 따르기로 했다. 그 부흥회 강사가 바로 체안 목사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랜스 김의 삶을 완전히 바꿔 주셨다. 리쿼 스토어를 정리하고 반도체 사업을 하게 하였고, 사업에 큰 복을 주셨다. 랜스 김은 매주 왕복 3시간을 운전하며 파나데나에 있는 추수반석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게 되었고 결혼 후 부

부 장로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놓치지 않았다.

랜스 김 장로 부부는 체 안 후보가 목사로 살아온 길을 제자와 동역자로 함께 걸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체 안 후보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의 믿음, 용기 그리고 신실함을 알게 되었다. 김장로 부부는 체안 후보가 주지사로 출마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를 힘차게 돕고 있다. 체 안 후보의 후원이나 선거 활동에 관한 문의는 랜스 김 장로(714 878 1289)에게로 하면 된다.

강태광 목사(World Share USA 대표) 기사 제공.

남가주교협 주최 '사역자 위로 일일관광' 성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건호 목사)는 사역자들을 위로를 기 위해 마련한 '사역자 위로 일일관광'을 11월 3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사역자들은 샌디에이고를 방문해 미드웨이 파크와 라호야 비치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서로의 사역을 격려했다.

전체 일정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4시간 반 동안 버스 안에서 찬양과 말씀, 간증, 그리고 진솔한 교제가 이어져, 한 원로목사님은 "소풍이 성품이 되었다"라고 간증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사역자 위로 일일관광'이 은혜 가운데 성료됐다.

이번 관광에 참여한 한 사역자는, "버스 안에서 부터 은혜가 가득 내렸고, 참가자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었다."고 소감을 나눴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진유철 칼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은혜로 거듭난 새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 따를 것, 그리고 싸울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

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딤후6:11-12)

먼저 ‘피할 것’은 바로 앞부분에서 말한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며 서로 비방하고 악한 일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킵니다. 말세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딤후4:1)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귀신, 도깨비, 무당, 점쟁이, 사주팔자나 타로, 오늘의 운세 등이 점점 익숙하게 자리 잡아 갑니다. 한국에는 목사의 숫자가 10만 명인데 비해 점쟁이 무당들은 60만 명이나 된다고 추정합니다.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 이유,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 된 이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이유는 점치는 자, 길흉을 말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점자

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요한계시록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한 분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위조지폐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를 더 연구해야 하는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이기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친밀히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25장에서 말세에 대해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에 보면, 미련한 5명은 신랑을 맞이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즉 교회는 나오고 봉사도 하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 때 10명이 다

줄며 잠을 잤지만,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날 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명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평소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Not I But Christ!’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이 ‘싸우라’인데,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싸움도 이기기에 쉬운 싸움은 없습니다. 유치해 보이는 어린 아이의 싸움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싸움은 영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길,끝(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복음의 선한 증인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살람!

강준민 칼럼

밟히는 다리의 영성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무명(無名)」이라는 영화를 성도님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CGNTV가 개국 2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제작된 배경은 양화진에 있는 일본 선교사님의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양화진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신 묘지입니다. 그곳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등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 선교사님의 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무덤이었습니다. 제작진은 바로 그 무명의 선교사님을 추적해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영화 「무명」에는 노리마츠 마사야스(乗松雅休)와 오다 나라지(織田 次郎), 두 일본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와 일본인의 잘못을 참화하며 복음을 전한 분들입니다. 수많은 한국 기독교인이 일본 압제의 두려움 속에서 신사참배를 할 때도 이 두 분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 다. 두 선교사님은 다리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영화 속에서 선교사님의 후손이 남

긴 다리에 관한 이야기가 가슴 깊이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다리란 서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리의 역할 중 하나는 밟히는 것입니다.” 다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노면(路面, road surface)”을 제공합니다.

“노면(路面)”은 ‘길 노(路)’와 ‘얼굴 면(面)’의 합쳐진 말입니다. 다리의 노면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다리를 건널 때 노면을 밟고 지나갑니다. 밟힘을 감수해야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밟힘을 감수해야 길이 됩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서 밟히고 또 밟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친히 밟히는 길이 되셨습니다. 가능한 한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분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CGNTV 제작진의 수고로 두 분의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CGNTV는 고(故) 하용조목사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 시작된 방송입니다. 또한 하목사님은 일본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2007년에 ‘러브 소나타(Love Sonata)’를 시작하셨습니다. 러브 소나타는 문화 전도 집회 형식을 취했습니다. 음악 공연, 영상, 찬양과 메시지를 종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집회였습니다.

하목사님은 “목숨을 건 일본 사랑”이란 말씀을 하시며 러브 소나타와 일본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러브 소나타 집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목사님과 온누리교회의 일본 선교 사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다리 역할을 감당했습니

다. 로잔 대회 산하의 공식 자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하용조목사)와 온누리교회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깊은 간극(the deep gulf)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목사님이 살아 계셨다면 「무명」이란 영화를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서로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초(foundation)입니다. 땅속 깊이 또는 바닷속 깊이 박힌 기초가 있어야 다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바람이 거세고 물살이 강해도 지금까지 안전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깊은 기초가 바다 밑에 단단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쉽게 무너지듯, 다리도 기초가 없으면 붕괴됩니다. 기초가 의미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둘째는 기둥(pillar)입니다. 기둥은 무게를 떠받치고 양쪽을 연결해 주는 버팀목입니다. 기둥은 다리의 안정성과 지탱을 담당합니다.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길 때 관계가 지탱됩니다. 존중이 기둥이 되어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지탱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상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노리마츠선교사님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체성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셋째는 아치(arch)입니다. 아치는 다리의 양쪽을 연결해 주는 구조입니다. 건축 용어로는 ‘보(梁, Beam)’라는 구조물입니다. 보(梁)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로 걸쳐져 무

게를 지탱하고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물입니다. 집에서는 천장과 지붕을, 다리에서는 노면(路面)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치는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가로대입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나눔의 상징입니다. 또한 아치가 의미하는 것이 공감(共感)입니다. 신뢰와 존중이 있어도 공감이 없다면 연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롬 12:15).

넷째는 노면(deck)입니다. 노면은 길의 표면입니다. 다리 위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실제로 지나가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다리의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노면이 깔리지 않은 다리는 아무리 기초와 기둥과 아치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면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길이 되어 주기 위해 밟히고 또 밟히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다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 받은 우리가 다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막힌 담을 헐고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다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무명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이제 다리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소원합니다.

202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마크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 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9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 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허복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JOINT and JOINT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관절 통증과 연골 손상엔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
"당신의 관절
다시, 편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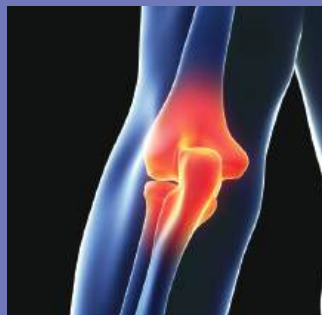
귀생당 JOINT & JOINT는 연골과 관절의 핵심 성분인
천연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을
주요 성분으로 관절과 연골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팔 관절



귀생당 JOINT & JOINT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인
보스웰리아, 터메릭, MSM의 천연 화합물을 엄선하여 재 구성함으로
관절, 연골 손상 예방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완화해서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JOINT & JOINT의 효능과 효과

- 관절 연골과 기능 개선
- 혈액이 연골 내로 흡수되어 충격완화 기능에 도움
-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반응을 억제
- 항산화, 항염증 작용으로 염증억제, 통증 완화
- 콜라겐 생성을 개선하여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유지



213.384.3333

www.kiseidousa.com

오픈청지기재단에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2025년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는 한인 사회 및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프로그램 확장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비영리
단체들을 모집 중이오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 요강

신청기간

2025년 10월 14일 - 2025년 11월 26일

수혜단체 발표

2026년 2월 28일(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혜단체는 웹사이트, 신문광고,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증빙 서류들과 함께
업로드 해 주세요.

openstewardship.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복음을 원하는 몸부림

사춘기, 본격적으로 00 필요하다고 외치는 시기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다

멜리사 크루거 | 정성목 역 | 두란노 | 324쪽 | 20,000원

사춘기 자녀 격정으로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부모를 위한 소망 가득한 성경적·실용적 양육 가이드. 사춘기 자녀의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 특별히 저자는 부모들의 마음속의 이상들 - 성공의 이상, 인기의 이상, 관계의 이상들을 직면하게 한다

십 대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 쉽기 때문이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신학교 총장의 아내로서, 교사로서 살아온 저자는 사춘기 자녀의 부모가 되는 법을 공부하기를 도전한다. 변하지 않는 탄탄한 기초 위에서 자녀를 키우기를 권하고 있다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TGC)에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 부회장으로 섬기는 멜리사 크루거(Melissa Kruger)는 미국 리폼드신학교 살렛캠퍼스 총장이자 신약학 교수인 마이클 크루거의 아내이자 세 남매를 키우는 엄마로, 여성 사역 관련 많은 강연과 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이즌 마더후드(Risen Motherhood) 이사로 활동하면서 복음이 여성의 일터, 가정, 교회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제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아쉽게도 그녀의 저작은 <당신의 자녀를 위한 다섯 가지 기도>라는 소책자 외에 국내 소개된 바가 없다. 아이를 위한 도서로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사랑해 예수님을>이 출간되기도 했는데, 현재 절판된 것처럼 보인다. 복음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멜리사 크루거의 강연 영상과 질의응답 영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한국 복음연합(TGCK, 복음과도시)에서도 자막이 제공되는 그녀의 강연 영상이 최근 올라왔다. 는 2025년 두란노에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다>는 제목으로 출간됐는데, 10대에 접어든 자녀를 어떻게 복음으로 길러낼 것인지 자세히 다루는 귀한 자원이다.

먼저 크루거 사모는 자녀 양육 동력이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밝힌다. 부모는 자기 힘으로 자녀를 길러낼 수 없다. 자기 지혜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직접 건네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인 말씀을 기초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지혜뿐만 아니라 자녀를 길러내는 부모를 위한 지혜를 풍성히 제공한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 하나님은 책 한 권을 던져주시고 알아서 그 책을 읽어가며 자녀를 키우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자녀 양육 현장에 늘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

신다.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고 하신다. 마지막으로 크루거는 자녀를 우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씨름,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키우려는 투쟁이 우리 각자가 홀로 치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의 함께 치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 하나를 길러내는 데 마음 하나가 필요하다는 세상의 지혜는 아이 하나를 둘러싼 믿음의 공동체로 인해 성경적 지혜가 된다. 다음으로 크루거는 10대 사춘기 자녀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그리고 솔직히 사춘기 자녀를 길러내는 부모를 더 시험에 들게 하는-우상의 문제를 다룬다: ①성공의 이상 ②인기의 이상 ③관계의 이상. 진로와 성취, 인간관계는 10대가 가장 집착하는 이상이다. 그들은 성공을 꿈꾸며,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마저 포기해 버린다.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한다. 친밀한 관계를 극적으로 사모하다 못해, 소셜미디어상 불특정 다수와 생각과 감정을 거침없이 나누기도 한다. 그러므로 10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그런 이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자칫 잘못 하면 부모마저 자녀를 성공하도록, 인정받도록, 많은 관계를 추구하도록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부모도 같은 이상숭배의 문제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 온갖 이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사춘기 자녀에게는 강요하고 통제하는 집안 분위기보다, 그들을 받아주고 함께해 주고 사랑하는 집안 분위기가 필요하다.

크루거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복음의 특성을 가정의 특성으로 삼을 것을 권면한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불순종을 고집하는 데도 무조건 내버려두고 방임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더라도 전제적 분위기는 은혜가 넘치고, 환영



©픽사베이

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분위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분위기가 아니라, 복음의 특성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받아준다. 복음은 죄로 인해 고립된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 복음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10대 자녀 양육을 가르치는 강사나 저자는 항상 ‘자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착실하게 부모를 잘 따랐던 자녀가 갑자기 반항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다.

어쩌면 자녀는 사춘기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일 수도 있다. 성공이나 인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 이든지 한없이 받아주고 함께하고 사랑해 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은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가정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시연하고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가장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이런 사람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함이라
전심으로 자기에게서 항함은
자들을 위함이라 능력을 베풀시라니

역대하 16:9 상

For the eyes of the Lord range throughout
the earth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2. CHRISTIANITY 16:9 상

龍谷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기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연작 ‘예수의 생애’

전쟁 당한 국민들에 위로와 희망 준 김기창 화백

성경 테마 역사적 회화 완성
조선 풍속화 양식 예수 생애
제한된 색조, 엄숙함 증폭해
‘집단적 기억의 형태’로 계승
사회봉사, 더 깊은 예술세계
예술 탁월성 의미 있게 사용 관심

윤보 김기창(1914-2001)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내 박래현의 처가집이 있는 군산 인근의 구암동에 피난집을 풀었다. 이 무렵 김기창은 조선시대 풍속에 따라 성경을 테마로 한 역사적인 회화작품 30점을 완성하게 된다.

김기창이 어머니 한윤명 여사를 따라 유년 시절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기독교 화가였던 스승 김은호(1892-1979) 화숙(畵宿)에서 지도를 받았으므로, 예수의 생애 연작을 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것이다.

자신도 그가 제작한 숏한 작품 가운데 〈예수의 생애〉 연작이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장애인 대부로 우뚝 선 인고 80년”, 동아일보, 1992. 4. 26)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술 재료를 구하기 힘든 전쟁 기간 중에도 “나는 다른 모든 일을 전폐하고 이 성화 제작에 내 온 심혈을 다 쏟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김기창의 예수 일대기는 총 30점으로 구성돼 있다. 수태고지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 동방박사들의 경배, 세례, 산상설교, 예루살렘 입성, 그리스도의 수난, 십자가 처형, 부활, 승천 등 예수의 생애를 망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작은 우리가 종전에 미술책에서 보던 서구의 그림과 사뭇 다르다. 지필묵으로 단련된 동양 화가답게 수묵과 채색의 농담이 풍부하고, 능숙한 선으로 인물들의 동

작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 김기창은 예수의 생애를 복음서에 대한 고증과 연구에 기초하면서도, 기독교 서사에 풍속화 양식을 접목시켰다.

작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조선이 배경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는 병사는 ‘조선의 관군’, 마리아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양반집 규수’, 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은 ‘사포’, 예수를 시험하는 마귀는 ‘도깨비’, 천사는 ‘선녀’로 각각 표현했고, 예수의 제자들은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있으며, 갓 쓴 예수는 ‘선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린이를 축복하는 장면에선 ‘두루마기를 입은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있거나 품에 안겨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며, 산상설교 장면에선 등에 봇짐을 메고 부채를 들고 있는 남정네에서부터 사대부들, 장옷을 걸치고 있는 부녀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마굿간은 말 대신 닭과 소가 뒤섞여 있는 ‘외양간’으로,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리는 곳은 ‘허름한 초가집’으로 표현됐다.

그림을 제작할 당시 김기창은 개화기 풍속화가 기산 김근준이 자신과 같이 풍속화풍으로 성화를 제작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선례가 있었기에 작가 자신이 예수의 생애를 풍속화풍으로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것이다.

예수의 생애를 조선 시대 풍속으로 재해석하였다는 것은 오희수의 지적대로 “기독교가 외래 종교가 아니라 이미 토착화된 종교로서 탈바꿈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것

은 우리나라 사람의 생활과 풍속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작가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작품을 최초로 권한 사람은 미국 선교사 앤더스 K. 젠슨(Anders K. Jensen, 1897-1956)으로 알려져 있다. 김기창도 젠슨 선교사가 전쟁 시기 군산을 찾아와 이 주제의 연작을 권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윤보 김기창 성화집, 예수의 생애』, 경미, 1980, p.10).

그런데 우향 박래현은 젠슨 선교사가 작품을 권한 시기를 일제시대로 기억한다. 일본이나 중국에도 각자 나라별 다른 모습으로 예수의 생애를 그린 적이 있으니, 당신도 장래 한국의 성화를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든 내용이었다(우향, “빛의 메아리”, 『주부생활』, 1967년 3월호).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젠슨 선교사의 전쟁 기간 행적에 있다. 젠슨은 6.25 전쟁이 발발하는 그날부터 3년여 간 인민군 포로로 억류돼 있다가 1953년 5월에 석방돼 사실상 김기창을 만나기 어려웠기에, 박래현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1932년 어머니를 여읜 후 슬픔에 잠겨 있던 김기창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 역사에 길이 남을 명화를 탄생시킨 계기가 된 셈이다.

〈예수의 생애〉가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1954년 화신백화점 화랑에서였다. 화신화랑에서 열린 〈윤보 성화전〉에는 그가 제작한 성화 29점이 출품됐다. 예수의 탄생에서 공생애, 죽음과 부활까지 망라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작가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예수의 수난’이었다. ‘예루살렘 입성’, ‘최후의 만찬’, ‘겔세마네의 기도’, ‘빌라도 재판’, ‘수난당하다’, ‘십자가를 지시다’, ‘십자가에 달리심’, ‘시신을 운구하는 제자들’ 등 연작 중에서도 특히 수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왜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수난에 초점을 맞췄을까. 예수께서 불쌍한 죄인을 위해 오시고 종국에 몸까지



▲김기창, 예수의 생애 중 ‘십자가를 지시다’, 비단에 수묵채색, 1952-1953.

내어주셨다는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후 현실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전제민(戰災民)에게 그의 그림은 각별하게 다가왔을 것이고, 우리 민족이 고난을 이기는 데 상당히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예수의 생애〉 연작은 이후 1970년 뉴욕문화센터에서 가진 〈예수 성화전〉, 그리고 1978년 경미화랑에서 발간된 화집, 1993년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윤보 김기창 팔순기념 대회고전, 200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바보전제 윤보 그림전〉, 2014년 서울미술관의 김기창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 〈예수와 귀먹은 양〉에 각각 선보였다.

그리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베를린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에서 개최된 〈루터 이펙트〉(Luther Effect, 500 Years of the Reformation) 초대, 2023년 쿠팡출판사가 발간한 『윤보 김기창 성화집 예수의 생애』, 2024년 서울미술관의 〈더 라이프 오브 지저스〉로 이어진다.

미술사학자 로버트 고든(Robert Gordon) 교수는 그림의 제한된 색조에 주목하면서 마치 예술가가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에 대한 궁극적 승리에서 위로를 얻은 것과 같은 예수 이야기의 엄숙함을 증폭시켰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집

단적 기억의 형태’로 계승되고 있는 셈이다.

김기창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도 앞장선 행동주의자였다. 그 자신이 소년 시절 장티푸스 후유증으로 무언(無言)과 불청(不聽)의 장애를 겪어 안고 살았던 화가로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복지사업을 펴는 데 필요한 재원은 물론 주위의 도움도 있었지만, 대부분 작가 자신이 충당하였다. 이렇듯 작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생활 자체가 예술이며 사회봉사와 섬김이 더 깊은 예술 세계를 만들어준다고 여겼다.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남을 위한 봉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업을 통해서는 정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봉사는 동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화가가 예술만을 위해 살다보면 한평생으로 전락하지만 봉사가 곁들여지면 정말 예술가가 되지요.”(『윤보 김기창 전작도록』, 도서출판 API, 1994, 4권, p.43)

작가는 그림만이 아니라 삶의 지평을 창의적으로 열어가는데 있어 책임있는 예술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예술적 탁월함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한, 일찍이 예술의 공공선에 대해 자각한 예술가였다.

서성록 명예교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열린 루터 이펙트에 출품된,〈예수의 생애〉(베를린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 2017).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레귤레이션

\$40

부터 시작

\$20

부터 시작

*단, 컬러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례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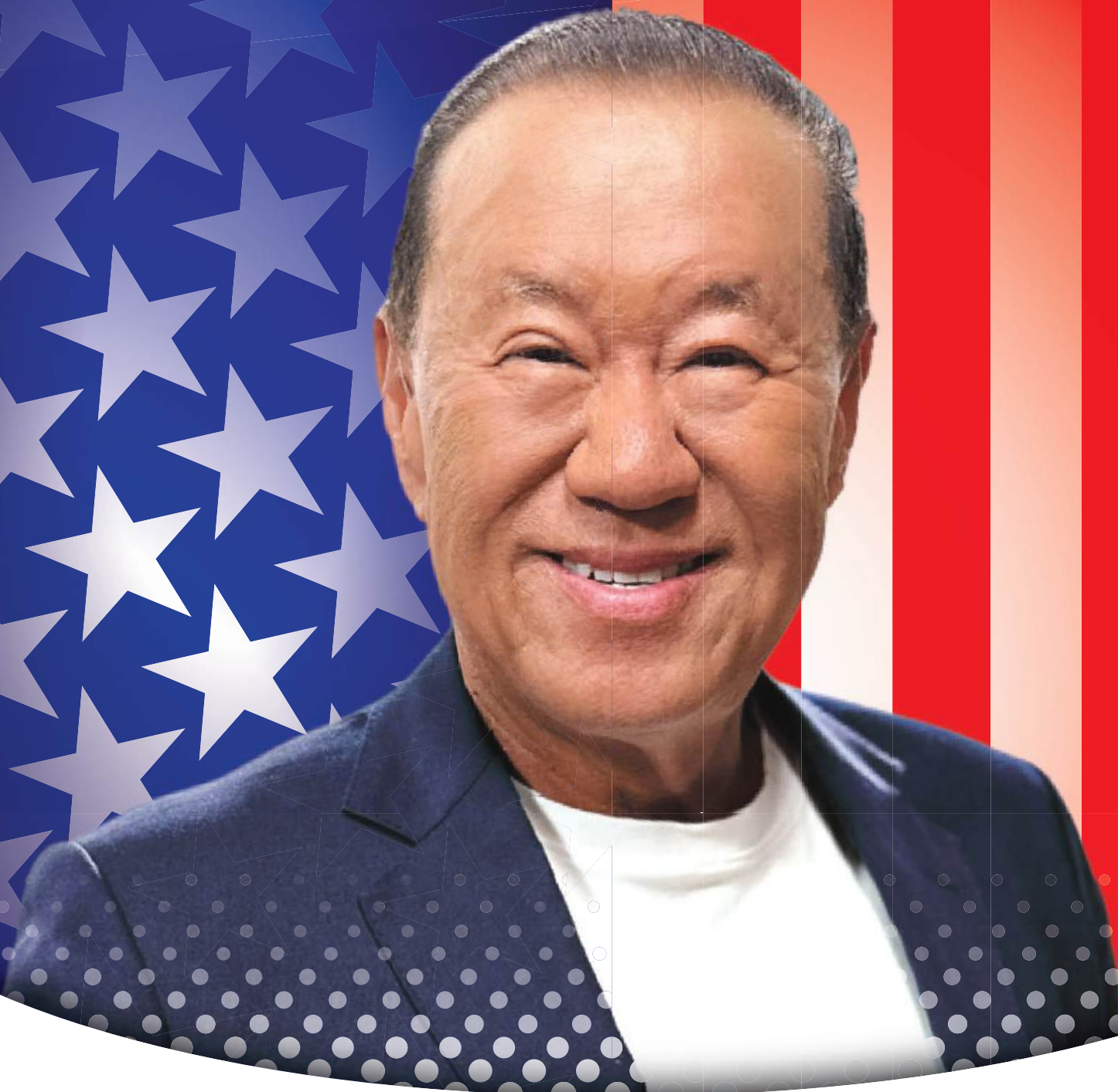
Tel: 213-739-1022

CALIFORNIA FIRST!

한인 최초 유일한
공화당 주지사 후보

CHÉ AHN

★ FOR GOVERNOR ★



“부모님 손을 잡고 5살에 이민 와서 생존을 위해 기도했던 안재호(체 안)는 위대한 동포 여러분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번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Survive〉
〈Thrive〉

- ☑ 풍요롭고 번영하는 캘리포니아를 위하여!
- ☑ 깨끗하고 안전한 캘리포니아를 위하여!
- ☑ 정의롭고 공정한 캘리포니아를 위하여!

안재호(Ché Ahn)후보가 나섰습니다.



www.che4ca.com

